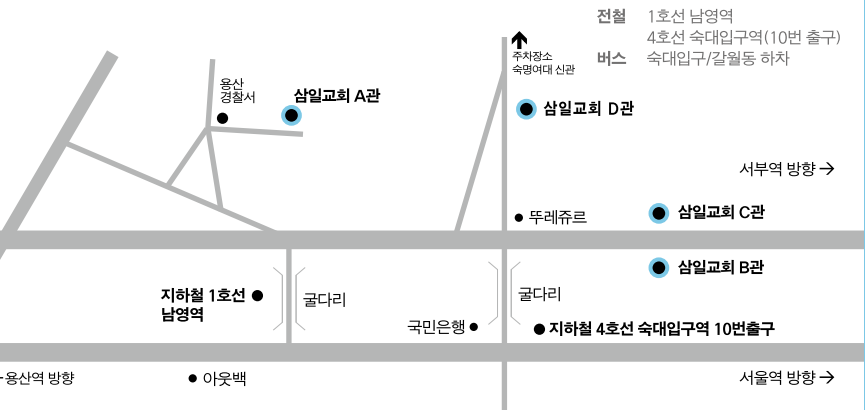


| 집회 | 시간 | 장소 | 집회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 1부: 오전 9:00 | 삼일교회 B관 2층 | 영아부예배 | 1부: 오전 10:30 | 4층 영아부실 |
| | 2부: 오전 10:30 | (영어통역 3층) | | 2부: 오후 1:30 | |
| | 3부: 오전 12:00 | (중국어통역 3층) | 유아부예배 | 오전 10:20 | 7층 유아부실 |
| | 4부: 오후 1:30 | | | 오후 1:20 | |
| | 5부: 오후 3:00 | (5부 일본어통역 3층) | 유치부예배 | 오전 10:10 | 7층 중예배실 |
| 6부: 오후 4:30 | 삼일교회B관 2층 | (6,7세) | | | |
| 젊은이예배 | 7부: 오후 6:00 | (영어통역 3층) | 유년부예배 | 오전 10:10 | 4층 유년부실 |
| | 오후 7:45 | | 초등부예배 | 오전 10:10 | 4층 초등부실 |
| 주일 저녁예배 | 오후 7:45 | | 소년부예배 | 오전 10:10 | C관 5층 |
| | | | | 중등부예배 | |
| 수요예배 | 1부: 오후 5:00 | 삼일교회 B관 2층 | 고등부예배 | 오전 11:00 | A관대예배실 |
| | 2부: 오후 7:30 | | | | |
| 금요철야기도회 | 오후 10:00 | | 새가족부 | 주일 낮 예배직후 | C관 1층 새가족부실 |
| 새벽기도회 | 1부: 오전 5:00 | | | | |
| | 2부: 오전 6:30 | | | | |

| 3월예배 봉사위원 | 3월 대표 기도 순서 | | | 봉헌위원 | |
|--------------|-------------|--------|--------|------|--------|
| | 1부 | 2부 | 3부 | 1부 | 박동선 집사 |
| | 1주 이광영 장로 | 박신찬 장로 | 이대규 장로 | 2부 | 김희석 집사 |
| | 2주 김경준 집사 | 주병옥 집사 | 임두호 집사 | 3부 | 장구경 집사 |
| | 3주 나원주 장로 | 이광영 장로 | 박신찬 장로 | 4부 | 장석면 집사 |
| | 4주 이윤석 집사 | 최승돈 집사 | 이수관 집사 | 5부 | 이수관 집사 |
| | 5주 이대규 장로 | 나원주 장로 | 이광영 장로 | 저녁예배 | 주병옥 집사 |

| 교회안내 | | | |
|------|--|------------------|------------------|
| B관 | 베다니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 Tel 02.713.2660 | Fax 02.3273.5297 |
| A관 | 아브라함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 Tel 02.711.4328 | |
| C관 | 새물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 Tel 02.703.4001 | Fax 02.711.3126 |
| D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삼일기도원_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 Tel 031.592.8385 | |



성경을 먹으라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 1~3부 임형진목사 / 4 ~5부 이윤준목사)

본문 계 4 : 10 - 11

제목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3)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헌신기도 1부 김경준집사 2부 주병욱집사 3부 임두호집사

주일 젊은이예배

설교 김성태목사

본문 대산 9 : 22 - 34

| | |
|---------|----------------------------|
| 제목 | “교회 주변에 살면서 교회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
| 주일 저녁예배 | 설교 송태근목사(사회 : 전종국목사) |
| | 본문 호 3 : 1 - 5 |
| 제목 | 호세아강해(4) “은총으로 나아가라” |

수요예배 설교 송태근목사(사회 : 박두진목사)
본문 고전 5 : 1 - 7
개요 고전 5장 1절에 (1) “그러한 자를

금요철야예배 설교 김정안목사

새벽기도회 설교 월: 이의주목사 화: 최성근목사 수: 고석창목사
 목: 송태근목사 금: 송태근목사

정승지 교향

Samil Church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2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눅18:1~8)

한국 성도들은 기도에 있어서 ‘지성이면 간척’이라는 뿌리 깊은 문송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내 적성과 열

힘이 상실되어 필요가 채워지면 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십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뿌리 깊은 오해가 시작된 이유를 밝히면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정당성을 가진 기도는 세대를 뛰어 넘어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느 도시에 두 캐릭터로 소개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둘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에는 어떤 원인을 가진 과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18:2,3) 과부와 원한이라는 표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통념적으로 사회적 용어로 이해되고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거대한 헤롯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권력과 지위를 이요해서 과부와 같은 사회의 약한 계층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종교성을 악용하여 종교를 가장한 구조적, 사회적 폭력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서 자주 원한을 풀러 달라고 하였습니다.(18:3)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여 원한을 풀러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18:5) '번거롭게 하다'는 원래 의미로는 '눈 밑을 계속 치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결국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어원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이 여인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 들어주었다는 의미일까요?

한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한의 내용이 정당성을 전제해야 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 수치를 당할까 봐 이 원한을 들어준 것은 곤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요구에 정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우선적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분의 인격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그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적 태도입니다.

Q:과부가 “원한” 을 가졌다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비유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부의한 재판장에 하나님을 대입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인간도 그 요구하는 조건이 정당한 가치를 가졌을 때 수치를 당할까하여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 위하시는 하는 아버지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18:6-7)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한은 정당성을 전제합니다. 즉, 성도로서 죄악 당여리이며 도무스승성이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도,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살아가고 기도한대로 결구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세상 미물에 세상과 천사를 앞세워서 권고거리로 두었다고 조조하듯 고백합니다. (고전 4:9) 이 땅에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앞에 구경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위해서 순종한 것 밖에는 없는데, 이 땅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요,

Q: “택하신 자들의 원한”처럼 성도로서 겪어야 할 아픔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원한은 반드시 풀리게 될 것인데,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응답될 것이라고 합니다. (18:8) 이 때문에 전파서를 가지고 복종하였던 수많은 기도인들이 살아 생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임의이

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18:1) 기도는 내가 논 뜨고 사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기도가 정당성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세대를 넘어 응답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성입니다.

6:9, 10) 그런데 기도는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대주재”라고 부릅니다. 대주재는 당시 로마황제의 보좌
를 부를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모든 통치와 심판과 영광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아바
지의 참되신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계 8:3~5)

Q: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 응답의 복을 고백해 봅시다.

기도는 이렇게 남아서 역사와 세대를 뛰어 넘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후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 안에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담보를 가진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